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1호, 2006년 6월
J Korean Acad Soc Nurs Edu Vol.12 No.1, 43-51, June, 2006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태도와의 관계

신 미 아[1] · 정 미 현[2]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월경전 증후군은 Frank(1931)가 처음으로 '월경전기 긴장(premenstrual tension)'이라고 기술한 이후, 아직까지도 단일화된 명칭으로 확립되지 않았으나, 월경 시작 전 약 2-10일경에 나타났다가 월경직후에 소실되는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인 복합증후군으로 지칭되고 있다.

증상으로는 우울, 불안, 요통, 부종, 유방통, 고장증 등을 포함한 150-20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으며(Halbreich, Endicott, & Nee, 1985), 유병률은 보고하는 연구자에 따라 혹은 연구대상, 후향적 또는 전향적 연구방법, 증상변화의 측정방법 등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여성의 30-90%가 월경전 증후군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문미경, 2002). 이중 여대생의 83.3%에서는 하나 이상의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을 겪고 있으며, 한달에 1-2회 이상은 일이나 공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범석 등, 2001).

많은 연구자들은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려 왔으나, 아직까지도 일치된 견해는 없으며, 호르몬 분비, 신경전달물질의 변화, 영양불균형 등 생물학적 요인(Aplandlp, 1983; Lori, Pemela, Mazyck, & Melissa, 2003)과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Cosgrove, & Riddle, 2003; 신미아, 2005).

여러 가지 사회심리적 요인 중에서는 월경에 대한 여성의 인식과 월경전 증후군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Fradkin, & Firestone, 1986), 월경태도가 월경전 증후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경은과 이성은, 2001). 또 전통적인 성 역할을 수용하는 여성이 현대적인 성 역할을 수용하는 여성보다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가 심하였으며(Woods, 1985),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정적 정서와 월경전기에 경험하는 신체 및 정신적인 증상이 심할수록 월경태도는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김정은, 1993). 또한 월경에 대한 사회적 금기와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월경시 신체적 불편감, 예민성의 증가, 사회적 활동과 통합의 장애를 초래하여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고착화 하였다(Soltzman, 1986).

이와 같이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태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여성들 스스로 월경증상으로 인해 겪는 불편감과 고통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한국의 사회·문화적 여건속에서는 미혼 여대생이 병원을 찾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그 관리에 있어 매우 소극적이다. 또한, 국내 여대생을 대상으로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태도와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홍경자 등(1998)의 연구와 이성은, 권영은(2002) 연구 2편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의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월경전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월경태도를 재확인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와 월경태도와의 관계를 파악 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를 파악한다.

주요어 : 대학생, 월경전 증후군, 월경태도
1) 경복대학 간호과 강사(교신저자 E-mail: shinmia2000@hanmail.net), 2) 원광보건대학 간호과 겸임교수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태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용어의 정의

● 월경전 증후군(Premenstrual Symptom)

월경전 증후군이란 월경시작 전 약 2-10일경에 나타났다가 월경시작전이나 월경직후에 소실되는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인 복합증후군으로(Frank, 1931), 본 연구에서는 Halbreich와 Endicott(1982)가 개발한 월경전기평가서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 월경태도(Menstrual Attitude)

월경태도란 월경주기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호르몬 변화와 사회문화적 신념으로 인해 형성되는 것으로써 월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말하며(Brook & Rule, 1980), 본 연구에서는 Brook(1980)의 Menstrual Attitude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 및 월경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여대생들 중 결혼과 출산, 유산의 경험이 없으며, 월경관련문제로 치료 및 약물복용을 하지 않은 여대생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 17명이 대상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협조와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자가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성실하지 못한 응답과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55부를 제외한 총 41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

● 월경전 증후군(Premenstrual Syndrome)

월경전 증후군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albreich와 Endicott(1982)가 개발한 월경전기평가서(Premenstrual Assessment Form, PAF)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후향적 자가평가방법으로 18개 영역,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미혼 여대생과 관련이 없는 '성교시 동통이나 불편감을 느낀다' 라는 1문항을 제외한 총 94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6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이성은과 권영은(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Cronbach's α = .98 이었다.

● 월경태도(Menstrual Attitudes)

월경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rooks-Gunn과 Rule(1980)이 여대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Menstrual Attitude Questionnaire(1980)를 토대로 김진숙(1998)이 여대생 350명을 대상으로 개발한 한국판 월경태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3문항으로 7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월경전 증후군의 신체적 증상을 나타내는 13문항을 제외한 총 2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당시 Cronbach's α = .95 ~.9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1 이었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태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태도와의 관계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 정도와 월경태도와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8세이며 21-25세가 353명(84. 7%), 20세 이하가 50명(12%), 26세 이상이 14명(3.4%) 순이었다. 학년은 2학년 287명(68.8%), 3학년 76명(18.2%), 1학년 39명(9.4%), 4학년 15명(3.6%) 순이었으며, 전공은 간호학과 127명(30.5%),

유아교육학과 60명(14.4%), 비서학과 39명(9.4%)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종교 200명(48%), 기독교 140명(33.6%), 불교 45명(10.8%), 가톨릭 32명(7.7%) 순이었으며, 한달용돈은 '보통이다'는 245명(58.8%), '적다'는 155명(37.2%), '많다'는 17명(4.1%) 순이었다. 현재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고 있다'는 314명(75.3%), '하고 있다'는 103명(24.7%) 이었다.

대상자의 월경상태는 평균 초경연령은 13.9세이며, 초경연령은 13-14세가 230명(55.2%)으로 가장 많았으며, 15세 이상이 134명(32.1%), 12세 이하가 53명(12.7%) 순이었다.

월경주기는 26-30일이 209명(50.1%)으로 가장 많았으며, 31-35일이 96명(23%), 21-25일이 66명(15.8%) 순이었다. 월경기간은 4-5일인 경우가 195명(46.8%), 6-7일은 182명(43.6%), 1-3일은 19명(4.6%), 8-9일은 18명(4.3%) 순이었다. 월경양은 '적은 편'은 220명(52.8%), '많은 편'은 197명(47.2%)이었다.

월경기간 중 통증여부는 '약간 있다'는 244명(58.5%), '심하다'는 108명(25.9%), '전혀 없다'는 65명(15.6%) 순이었다.

월경전 증후군의 가족력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152명(36.5%), '있다'는 139명(33.3%), '없다'는 126명(30.2%)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417)

Characteristics	Item	Frequency(%)	Mean(S.D)
Age	≤20 years	50(12)	21.8(1.57)
	21-25 years	353(84.7)	
	≥26 years	14(3.4)	
Grade	1st	39(9.4)	
	2nd	287(68.8)	
	3rd	76(18.2)	
	4th	15(3.6)	
Major	Child education	60(14.4)	
	Management	33(7.9)	
	Design	27(6.5)	
	Nursing	127(30.5)	
	Skin beauty	17(4.1)	
	Radiation	18(4.3)	
	Clinical laboratory	15(3.6)	
	Secretary	39(9.4)	
	Dental hygiene	47(11.3)	
	etc	34(8.2)	
Religion	Christian	140(33.6)	
	Buddhist	45(10.8)	
	Catholic	32(7.7)	
	None	200(48)	
Pocket money degree	Small	155(37.2)	
	Moderate	245(58.8)	
	Many	17(4.1)	
Arbeit	None	314(75.3)	
	Yes	103(24.7)	
Menarche age	≤ 12 years	53(12.7)	13.9(1.37)
	13-14 years	230(55.2)	
	≥ 15 years	134(32.1)	
Interval of menstruation	≤ 20days	12(2.9)	
	21-25days	66(15.8)	
	26-30days	209(50.1)	
	31-35days	96(23)	
	36-40days	24(5.8)	
	≥ 41days	10(2.4)	
Duration of menstruation	1-3days	19(4.6)	
	4-5days	195(46.8)	
	6-7days	182(43.6)	
	8-9days	18(4.3)	
	≥10days	3(0.7)	
Amount of menstruation	Scanty	220(52.8)	
	Profuse	197(47.2)	
Pain of menstruation	None	65(15.6)	
	Slightly	244(58.5)	
	Severely	108(25.9)	
Family history	None	126(30.2)	
	Yes	139(33.3)	
	Unknown	152(36.5)	

월경전 증후군 정도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은 Halbreich와 Endicott(1982)이 분류한 1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Table 2>.

94문항으로 측정한 월경전 증후군의 18개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2.48(±.85)로 나타났다. 이 중 영역별로 가장 낮은 점수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2.20±1.00), '비정형성 우울양상'(2.32±.95), '일반적 신체 불편감'(2.32±.97), '신경질적 양

<Table 2> Item content of unipolars summary scale scores of PAF

No	Category of PMS symptom	Mean	S.D
1	Increased well-being	2.37	1.00
2	Impaired social functioning tend to nag	2.60	1.05
3	Miscellaneous mood/behavior	2.60	.92
4	Impulsivity	2.72	1.02
5	Hostility/anger	2.46	1.01
6	Low mood/loss of pleasure	2.36	1.04
7	Autonomic physical change	2.46	1.05
8	Social withdrawal	2.52	.98
9	Miscellaneous physical changes	2.20	1.00
10	Hysteroid feature	2.32	1.04
11	Signs of water retention	2.57	.92
12	Anxiety	2.76	1.09
13	Organic mental feature /Poor motor coordination	2.48	.99
14	Unstability	2.35	.99
15	Endogenous depressive feature	2.76	.97
16	Atypical depressive feature	2.32	.95
17	General physical discomfort	2.32	.97
18	Fatigue	2.46	1.02
		2.48	.85

상'(2.32±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는 '내인성 우울양상'(2.76±.97), '불안감'(2.77±1.09)', '충동성'(2.72±1.02) 순으로 나타났다.

월경태도 정도

대상자의 월경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4.26(±.44)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월경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문항은 '매달 월

<Table 3> Mean scores of PMS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Item	PMS			Scheffe test
		Mean(S.D)	t or F	p	
Age	≤20 years	2.56(.81)	.241	.786	
	21-25 years	2.47(.87)			
	≥26 years	2.43(.65)			
Grade	1st	2.56(.89)	3.414	.018*	
	2nd	2.53(.85)			*
	3rd	2.21(.79)			*
	4th	2.73(.98)			
Major	Child education	2.48(.79)	2.755	.004**	
	Management	2.61(1.01)			
	Design	2.56(.95)			
	Nursing	2.32(.80)			
	Skin beauty	2.73(1.05)			
	Radiation	2.36(.87)			
	Clinical laboratory	1.84(.54)			
	Secretary	2.61(.68)			
	Dental hygiene	2.82(.84)			
	etc	2.49(.92)			
Religion	Christian	2.43(.88)	.986	.399	
	Buddhist	2.67(.87)			
	Catholic	2.41(.84)			
	None	2.48(.83)			
Pocket money degree	Small	2.47(.88)	.746	.475	
	Moderate	2.47(.83)			
	Many	2.73(.99)			
Arbeit	None	2.48(.86)	.014	.906	
	Yes	2.48(.84)			
Menarche age	≤ 12 years	2.43(.86)	5.910	.003**	
	13-14 years	2.37(.82)			*
	≥ 15 years	2.69(.87)			*
Interval of menstruation	≤ 20days	2.73(1.23)	1.021	.405	
	21-25days	2.48(.89)			
	26-30days	2.55(.83)			
	31-35days	2.35(.82)			
	36-40days	2.34(.73)			
	≥ 40days	2.42(1.09)			
Duration of menstruation	1-3days	2.62(.87)	.613	.653	
	4-5days	2.50(.85)			
	6-7days	2.45(.86)			
	8-9days	2.54(.91)			
	≥10days	1.88(. 30)			
Amount of menstruation	Scanty	2.41(.87)	-1.889	.600	
	Profuse	2.56(.82)			
Pain of menstruation	None	2.18(.86)	7.886	.000***	*
	Slightly	2.46(.81)			
	Severely	2.70(.88)			*
Family history	None	2.27(.80)	5.366	.005**	
	Yes	2.57(.83)			
	Unknown	2.57(.89)			

경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징후이다'(5.37±.98), '월경은 주기적으로 여성임을 확인시켜 준다'(5.29±.99), '월경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5.27±.95)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긍정적인 문항은 '월경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2.21±1.29), '월경은 불결하다고 생각한다'(2.27±1.42), '월경고통을 불평하는 여성들은 그것을 단지 핑계로 삼으려는 것이다'(3.03±1.44)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Mean scores of menstrual attitude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Item	Menstrual attitude			Scheffe test
		Mean(S.D)	t or F	p	
Age	≤20 years	4.23(.45)	.127	.881	
	21-25 years	4.26(.44)			
	≥26 years	4.26(.45)			
Grade	1st	4.15(.40)	3.315	.020*	*
	2nd	4.27(.44)			
	3rd	4.23(.45)			
	4th	4.57(.45)			*
Major	Child education	4.33(.41)	3.813	.000***	
	Management	4.27(.45)			
	Design	4.36(.36)			
	Nursing	4.32(.48)			
	Skin beauty	4.22(.29)			
	Radiation	4.15(.43)			
	Clinical laboratory	4.42(.40)			
	Secretary	4.03(.34)			
	Dental hygiene	4.05(.43)			
	etc	4.39(.46)			
Religion	Christian	4.39(.43)	6.313	.000***	*
	Buddhist	4.19(.42)			
	Catholic	4.27(.45)			
	None	4.19(.44)			*
Pocket money degree	Small	4.25(.45)	.141	.868	
	Moderate	4.27(.44)			
	Many	4.25(.39)			
Arbeit	None	4.26(.44)	.602	.438	
	Yes	4.27(.46)			
Menarche age	≤ 12 years	4.23(.46)	.105	.900	
	13-14 years	4.26(.45)			
	≥ 15 years	4.26(.43)			
Interval of menstruation	≤ 20days	4.03(.22)	2.834	.016*	
	21-25days	4.14(.37)			
	26-30days	4.27(.48)			
	31-35days	4.31(.42)			
	36-40days	4.46(.38)			
	≥ 40days	4.22(.51)			
Duration of menstruation	1-3days	4.12(.43)	1.181	.318	
	4-5days	4.27(.45)			
	6-7days	4.28(.44)			
	8-9days	4.13(.45)			
	≥10days	4.00(.21)			
Amount of menstruation	Scanty	4.25(.43)	.003	.959	
	Profuse	4.27(.46)			
Pain of menstruation	None	4.14(.46)	3.059	.048*	
	Slightly	4.27(.43)			
	Severely	4.32(.46)			
Family history	None	4.18(.46)	3.062	.048*	
	Yes	4.29(.44)			
	Unknown	4.30(.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 증후군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 증후군 정도는 학년(F=3.414, p=.018), 전공(F=2.755, p=.004), 초경연령(F=5.910, p=.003), 월경시 통증(F=7.886, p=.000), 가족력(F=5.366,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Scheffe test를 통해 사후검정한 결과 학년에서는 2학년이 3학년보다, 초경연령에서는 15세이상이 13-14세보다, 월경시 통증에서는 통증이없을때보다 통증이 심할 때 월경전 증후군 정도가 높았으며 전공, 가족력유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태도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태도 정도는 학년(F=3.315, p=.020), 전공(F=3.813, p=.000), 종교(F=6.313, p=.000), 월경주기(F=2.834, p=.016), 월경시 통증(F=3.059, p=.048), 가족력(F=3.062, p=.04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Scheffe test 를 통해 사후검정한 결과 학년에서는 4학년이 1학년보다, 종교유형에서는 기독교 대상자가 종교가 없는 경우보다 월경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전공, 월경간격, 월경시 통증, 가족력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태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태도는 r=.112(p<.05)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월경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월경전 증후군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s between PMS and menstrual attitudes

	PMS r(p)
Menstrual attitudes	.112(.022*)

논 의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평균초경연령은 12.9세이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박경은과 이성은(2001)의 연구에서 평균 초경연령은 14.1세이며, 김혜원과 권미경(2005)의 여중생 대상인 연구에는 12.2세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최근 영양섭취가 개선되고 환경적인 영향 등으로 초경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현재 여대생으로 기존에 보고되었던 초경연령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월경시 통증유무를 확인한 결과, 통증이 '있다'는 84.4%로 나타났고, 그 중 '심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25.9%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권인숙(1996)의 81.5%와 여대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경은과 이성은(2001)이 보고한 91%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여고생과 여대생의 과반수이상에서 월경통을 겪고 있으며, 전은미(2003)가 보고한 여대생의 42%가 월경시 진통제를 복용하는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통증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통증 중재에 대한 접근여부와 방법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력 유무는 가족력이 '있다'는 33.3%로 나타났는데 이는 변이순(1999)이 보고한 33.1%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모른다'는 36.5%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월경에 대해 어머니로부터 전해진 사전지식의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월경에 관련하여 미리 정보를 파악 한 후 설문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월경전 증후군정도는 18개의 영역으로 분류된 9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2.48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성은과 권영은(2002)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던 1.89와 문미경(2002)의 2.0, 변이순(1999)의 1.7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월경전 증후군 증상정도를 최근 3회 정도를 기억해서 응답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되며 추후 전향적 연구설계를 통한 반복연구를 통해 정확한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경전 증후군 정도를 알아보는 18개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는 '내인성 우울양상', '불안감', '충동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성은과 권영은(2002)이 가장 낮은 점수로 보고한 '내인성 우울양상'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은 정신적 증상을 보인다는 Marvan, Diaz-Erosa 및 Montesinos(1998)의 연구결과와 다소 유사한 결과이나, 다양한 모집단을 표본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장 낮은 점수는 '신체적 불편감'으로 이는 문미경(2002)이 가장 낮다고 보고한 '안녕감의 증가'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Sullivan(1990)은 연령에 따라 월경전 증상은 15-25세의 여성에서는 배란주기와 관련하며 월경전 증상이 경미하고, 35세 이후의 여성들은 하복부 및 허리와 관절통 등의 통증을 수반하며 지속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은미(2003)는 여대생들은 신체적 불편감보다는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호소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상반되며, 홍경자, 박영순, 김정은 및 김혜원(1998)의 한국과 미국여대생의 월경전후기 불편감을 측정한 결과 미국여대생은 주로 부정적 정서를 호소하고 한국여대생들은 통증을 호소한다는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월경전 증후군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학년, 전공, 초경연령, 월경시 통증, 가족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에의 노출이 월경전 증후군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Woods, Most, & Dery, 1982)에서 유추해 볼 때 학년과 전공 등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경연령과 월경시 통증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변이순(1999)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월경시 통증을 완화해줄 수 있는 간호중재가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시 나타나는 통증을 오인하여 나타난 결과로도 추측을 해 볼 수 있어 추후 연구시, 월경전 증후군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후에 설문지에 응답을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초경은 월경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태도를 형성하는 첫 시기이며,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신념이 형성된 경우, 월경전 증후군의 증상이 심화된다는 Woods(1985)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월경전 증후군에 가족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경은과 이성은(2001)의 연구와 변이순(199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김은주(1987)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가족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으나(Robert, 1981),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규명해야 할 연구문제로 남아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태도 정도는 학년, 전공, 종교, 월경주기, 월경시 통증, 가족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cheffe test를 통해 사후검정한 결과 학년과 종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존 선행연구의 미비로 그결과를 비교분석하기위해서는 추후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월경태도의 각 항목별 평균점수는 '매달 월경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징후이다'와 '월경이 주기적으로 여성임을 확인시켜준다',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준 결과는 이은희 등(2003)의 '여성으로서 존재의 의미가 있다.'와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났다. 여대생들은 월경을 생리적·정신적으로 부정적 변화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여고생들의 월경태도에 대한 연구결과(정미경, 1998)는 월경은 신체적·심리적으로 약화시키는 사건이면서도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본 연구에서 '월경이 공부하는데 방해한다' 는 홍경자 등(1998)의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이 월경을 여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좀더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월경태도와 월경전 증후군은 .112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이성은과 권영은(2002)의 연구에서 두변수간의 상관관계는 .395로 보고되었다. 또한 Lu(2003)의 보고에서도 월경태도는 월경전 증후군의 신체적, 인지적, 행동적, 사회적 영역에서의 변화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이는 월경전 증후군과 관련된 통증이나 부정적 정서, 일상생활의 제약정도가 심할수록, 성역할 수용도가 낮을수록 월경태도가 부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였다(김정은, 1993; 김진숙, 1998; Soltzman, 1986).

결론적으로 여대생들은 월경전 신체적 변화와 불편감보다는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변화에 많은 장애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월경태도에 부정적인 성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월경전 증후군의 중재 프로그램에는 학년, 전공 등 개인적인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월경과 여성 건강에 관한 보건교육, 교양강좌,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한 보건지식의 제공과 더불어 사회심리적인 측면이 강화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월경시 통증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간호중재는 심리적·신체적 불편감에서 초래되는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월경태도가 교육, 문화, 사회, 환경, 개인의 가치나 신념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가정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하며, 개별적 또는 집단적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 정도와 월경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 41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목적과 절차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가보고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9문항), 월경전 증후군 정도(94문항), 월경태도(20문항)로 구성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 정도는 평균 2.48(±.85)으로 나타났으며, 18개 영역별로 측정한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는 내인성 우울양상(2.76±.97), 불안감(2.77±1.09), 충동성(2.72±1.02) 순으로 나타났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 증후군 정도는 학년(F=3.414, p=.018), 전공(F=2.755, p=.004), 초경연령 (F=5.910, p=.003), 월경시 통증(F=7.886, p=.000), 가족력(F=5.366, p=.0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cheffe test를 통해 사후검정한 결과 학년, 초경연령, 월경시 통증

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태도 정도는 학년(F=3.315, p=.020), 전공(F=3.813, p=.000), 종교(F=6.313, p=.000), 월경주기(F=2.834, p=.016), 월경시 통증(F=3.059, p==.048), 가족력(F=3.062, p=.04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Scheffe test를 통해 사후검정한 결과 학년과 종교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에 대한 태도는 r=.112(p<=.05)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한다.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월경전 증후군 측정도구 외에 영역별로 세분화된 도구로 전향적 연구설계를 통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월경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을 대상으로 월경전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 요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권인숙 (1996). 여자고등학교 학생의 여성 정체감과 월경전 증후군. *한국학교보건학지, 9*(2), 223-237.

김은주 (1987). 인성과 월경전기 증후군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8*(1), 80-93.

김정은 (1993). 여성의 월경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구조모형구축. *대한간호학회지, 23*(2), 224-244.

김진숙 (1998). *월경전기 증후군, 월경에 대한 태도, 신경증적 성격특성 및 스트레스에 관계.* 서울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김혜원, 권미경 (2005). 일지역 여중생의 월경에 대한 조사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2), 148-155.

문미경 (2002). *여고생의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와 대처.*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박경은, 이성은 (2001).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7*(3), 359-372.

변이순 (1999). *여고생의 성역할 특성과 월경전 증후군과의 관계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

신미아 (2005).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이성은, 권영은 (2002).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에 대한 태도, 성역할 태도 및 성역할 특성에 관한 연구. *경인논집, 2,* 137-149.

이은희, 김증임, 김혜원, 이혜경, 이숙희, 강남미, 허명행, 박영숙 (2003). 성인여성의 월경곤란증과 월경에 대한 태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2), 105-112.

전은미 (2003). 일부 여대생의 월경증상·대처방법·증상완화정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2), 161-169.

정미경 (1998). *여고생의 월경지식, 태도, 증상 및 대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정범석, 이철, 이지현, 서민경, 한오수, 김창윤 (2001). 서울 지역 여자대학교 집단에서 월경전기 증후군 및 월경전 불쾌기분장애의 유병율. *신경정신학회, 40*(4), 551-558.

홍경자, 박영순, 김정은, 김혜원 (1998).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월경전후기 불편감, 월경에 대한 태도, 성역할 수용도의 횡문화적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2), 233-243.

Aplandlp, T. M. (1983). Premenstrual Syndrome : A Selective Review. *Women Health, 8*, 107-124.

Brooks, G. J., & Rule, D. (1980). The menstrual attitudes questionnaire. *Psycho Med, 52,* 536-543.

Cosgrove, L., & Riddle, B. (2003). Construction of feminity and experiences of menstrual distress. *Women Health, 38*(3), 37-58.

Fradkin, B., & Firestone, P. (1986). Premenstrual tension, expectancy and mother-child relations. *J Behav Med,* 9, 245-249.

Frank, R. T. (1931). The hormone cause of premenstrual tension. Arch *Neurol psychiatr, 25*, 1053-1057.

Halbreich, U., Endicott, J., & Nee, J. (1985). The diversity of premenstrual changes as reflected in the Premenstrual Assessment Form. *Acta Psychiatr Scand, 65*, 46-65.

Lori, M. D., Pemela, J., Mazyck., & Melissa, H. H. (2003). Premenstrual Syndrome. A*m Fam Physician, 67*(8), 1743-1754.

Lu, Z. J.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menstrual attitudes and menstrual symptoms among Taiwanese women. *Adv Nurs, 33*(5), 621-628.

Marvan, M. L., Diaz-Erosa, M., & Montensinos, A. (1998). A Premenstrual symptoms in Mexican women with different educational levels. *J Psychol, 132,* 517-526.

Soltzman, S. M. (1986). *Menstrual attitudes, Beliefs, and Symptoms Experiences of Adolescent Females, Their peer, and their mothers.* Hemisphere Publishing Cooperation, 97-114.

Sullivan, N. (1990). Dysmenorrhea, In R. Lichtman & S. Papera(Eds.). *Gynecology Well-Women Care,* 333-343.

Woods, N. F., Most, A., & Dery, G. K. (1982). Prevalence of premenstrual symptom. *Am J Public Health, 72,* 1257-1264.

Woods, N. F. (1985). Empliyment, family roles and mental ill health in young married women. *Nurs Res, 34*(1), 4-10.

The Relationship between Premenstrual Syndrome and Menstrual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Shin, Mi-A[1] · Jeong, Mi-Hyeon[2]

1)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Kyungbok College
2) Adjunct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ty the relationship between PMS and menstrual attitudes.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417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area during the period from the 6th of September to the 15th of October in 2004. Collected data were analysed using the SPSS WIN 11.0.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Perceived subjective symptoms were clustered endogenous depressive feature(2.76±.97), anxiety(2.76±1.09), and impulsivity(2.72±1.02). 2) PM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grade(F=3.414, p=.018), major(F=2.755, P=.004), menarche age(F=5.910, p=.003), pain(F=7.886, p=.000), family history(F=5.366, p=.005). 3) Menstrual attitud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grade(F=3.315, p=.020), major(F=3.813, P=.000), religion(F=6.313, p=.000), interval of menstruation(F=2.834, p=.016), pain(F=3.059, p=.048), family history(F=3.062, p=.048). 4) Menstrual attitudes and PMS were in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r=.112, p=.002). **Conclusion:** This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MS and menstrual attitudes. For further research, it is recommended to identity major factors affecting PM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and various subjects.

Key words : Student, Menstruation, Attitude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hin, Mi-A*
Department of Nursing, Kyungbok College
Sinbuk-myeon, Pocheon-si, Gyeonggi-do 487-717, Korea
Tel: 82-31-559-7629 Fax: 82-31-559-7629 E-mail: shinmia2000@hanmail.net